

김광수 “현장에 답 있다”... 울릉도부터 뉴욕까지 소통행보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지난달 해외점포·현지법인 방문 고성 등 4개 권역별 격오지 찾아 직원들 애로사항 청취하고 격려 금융지원현황 점검하고 강화 주문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이 국내 오지와 미국 뉴욕, 홍콩까지 누빈 현장경영을 마무리했다.

NH농협금융은 김 회장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중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경북 문경과 충북 보은 관내 영업점 방문을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현장경영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도심권 금융점포 중심의 현장경영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금융소외지인 산간·도서지역 중심의 최일선 점포를 위주로 방문했다. 수도권에 비해 금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금융환경과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농협금융만의 포



지난 10일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중부 내륙지역 현장경영 중 충북 음성군 소재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적 금융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초 고성과 속초 등 강원권을 시작으로 여수·목포, 울릉도, 문경·보은 등 격오지 점포를 방문했으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해 소통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했다.

지난달에는 세계 금융중심지 뉴욕 및 홍콩에 소재한 농협금융 점포와 현지법인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현장경영 행보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현장경영 내내 특유의 친화력으로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인생선배로서의 경험, 고민과 관심사, 마음가짐과 자세, 꿈과 희망 등 다채로운 화두로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격오지와 해외 근무의 애환을 격려하며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고, 디지털 전환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라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부단한 자기혁신 노력으로 진정한 금융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방문으로 4월 4일 강원권 도착 첫 날 고성과 속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현장대응 체제로 일정을 대폭 수정했던 것을 꼽았다.

현장경영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인 농우바이오 중요육종연구소(경기 여주), 남해화학(전남 여수), 축산물공판장(충북 음성), 농협홍삼 제조본부(충북 증평) 등과 함께 축산 스마트팜 농가도 방문했다. 금융지원 현황과 애

로사항을 직접 점검했으며, 농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촘촘한 금융지원 및 범농협 시너지 제고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장경영에서 파악된 점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디지털, 혁신금융 등 미래사업과 2020년 경영계획 준비를 위해 계열사 본사 임직원과의 소통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농식품 산업 특화 벤처캐피탈 등 농협금융만의 차별적 혁신금융 추진과 같은 농협금융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과제들을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3분기 내에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CEO)회의, 임직원 워크숍, 청년이사회, NH미래혁신리더 및 90년대 직원과의 간담회 등 다층적 소통을 통해 경영방침에 대한 이해와 미래 변화관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KB국민銀,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자산관리

블록체인기업 아톰릭스랩과 MOU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산센터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주목해 디지털자산보호기술을 가진 아톰릭스랩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우열 KB국민은행 IT 그룹 대표와 정우현 아톰릭스랩 대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톰릭스랩은 금융, 블록체인 설계, 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차세대 암호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보호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양사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보호기술과 스마트컨트랙트 적용 방안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전산센터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관리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우현 아톰릭스랩 대표(왼쪽)와 이우열 KB국민은행 IT 그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톰릭스랩의 혁신 기술과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인프라 및 정보보호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자산관리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금융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강화

툰슨 로이터社 교육프로그램 도입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톰슨 로이터사의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최근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감독기관의 규제 및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당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수준을 글로벌화 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툰슨 로이터사는 세계 110개국의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컨설팅 선두기업이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해외점포

주재원들과 본점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 직원 및 관련 부서 실무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도와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개념, 법규 및 제도, 업무처리 절차, 주요 자금세탁 거래 유형, 최근 동향 등을 숙지하면서 업무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향후 신한은행은 기존에 활용 중인 국내 전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이 교육 과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행원부터 경영진까지 이르는 신한은행 전체 직원들은 각 직급별·직무별로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이수하면서 국내 법령에 근거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글로벌 업무 기준을 더한 내용까지 숙지할 수 있게 된다.

/안상미 기자

하나금융, ‘융합형 데이터 인재’ 키운다

업계 최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현장 디지털솔루션 직접 구현 기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호텔에서 그룹 공동의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과정’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과정은 김형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외 같은 대학의 통계학과, 산업공학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등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학과의 교수진들이 커리큘럼에 참여하는 하나금융그룹만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데이터 기반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그룹 관계사 우수직원을 선발, 심층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융합기술원 기술전문가와 1:1 멘토링을 통해 영업현장의 과제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직접 구현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선발된 임직원은 현업에서 벗어나 약 4개월 간의 전일 집합교육을 통해 공학 기반의 전문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 혁신 과제의 직접 수행을 목표로 한 집중 연수를 받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 과정을 통해 그룹 내 관계사의 세부 조직과 다양한 업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그룹 공동의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과정’을 신설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두번째줄 오른쪽 다섯번째),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앞 줄 오른쪽 네번째), 김정환 하나금융그룹 CDO(두번째줄 왼쪽 첫번째)가 입과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연결하고 상호간에 시너지를 창출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대응 가능한 역량 확충과 융합형 업무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최고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우수인재들이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현장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그룹 관계사들이 데이터라는 주제로 하나가 돼 현장 중심의 혁신 사업 발굴부터 기술의 개발, 구현, 적용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협업하는 일원화된 체계(DevOps)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나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날 행사에는 그룹 내 기술전문 조

진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소속의 국내외 석·박사 연구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양성과정 대상자들이 수행할 데이터 기반의 현장업무 관련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술의 구체화 및 기술 자산화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각각도로 협업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데이터를 활용해 손님에게 최고의경험을 선사하는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가 돼야 한다”며,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과정에 선발된 직원들은 최고의 역량을 갖춰 하나금융그룹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내일채움공제 우리는행서도 가입하세요”

중진공-우리은행, 청년취업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 31개 지역조직을 중심

으로 가입 접수를 받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기업은행 600개 지점, 올해엔 신한은행 750개 지점으로 가입 창구를 확대했다. 이번 우리은행과의 협약으로 앞으로는 우리은행 전국 750개 지점에서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자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장기재직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